



2026년 9월 6일(제1316호) 연중 제23주일

군종주보

발행 : 군종교구 농보국 | 전화 : 02)749-1921, 군)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말씀

“사랑의 기지, 같이”

찬미 예수님! 오늘 말씀의 전례를 관통하는 한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말씀이 말씀들을 비추어줍니다. 그런데 1독서의 말씀은 조금 의미심장합니다. 주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악인에게 악한 길을 버리도록 경고하는 말을 하지 않으면 그 악인이 죽은 책임은 너에게 묻겠다.” 이 말씀에 “아니, 저 녀석이 안 바뀌는 걸 내보고 어찌란 말씀이십니까?”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2독서가 답해 줍니다. 사랑의 빛을 지우는 것. 그것은 예외가 된다고 합니다. 아무도 스스로 목숨이 위험한 상황에 홀러가도록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바오로 사도의 말씀처럼 모든 계명은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말로 요약됩니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은 예제키엘 예언자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사랑의 목소리를 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화답송은 “오늘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하고 노래합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가 일상 안에서 만나는 다양한 소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주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분별력을 청할 수 있어야 하지요. 본당 신부를 통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스승을 통해서, 심지어 아이를 통해서도 주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속삭이십니다. “서로 사랑하여라.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여라. 그래서 네 이웃이 죄를 짓게 하지 마라.” 이것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오늘 복음은 어떠합니까? 네 형제가 죄를 짓거든 먼저 단둘이 만나 그를 타이르라고 말합니다. 사회적으로 공개적으로 ‘지적’하지 말고 타이르라는 말씀은 그를 위한 배려입니다. 그래도 듣지 않거든 한 사람이나 두 사람 더 데리고 가서 한 번 더 타이르고, 그 다음에는 교회에 알리라고 합니다. 형제의 회개를 위해 공동체가 사랑의 인내를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는 단순 명료한 가르침입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다른 민족 사람이나 세리처럼 여기라고 합니다. 혹여나 다른 민족 사람이나 세리처럼 여기라는 주님 말씀을 오해하지는 맙시다. 이 말씀은 그들을 배척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들에게 거리를 두고 시간을 주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사랑의 이음동의어인 용서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같이, 살라는 말씀이지요. “같이” 이것이 우리의 “가치”입니다. 죄짓는 형제를 내버려두는 것은 무관심이요, 무관심은 사랑의 부재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야기하는 용기는 사랑하기에 낼 수 있는 용기입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이웃을, 공동체 형제, 자매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인내와 설득의 과정을 쉽게 저버리지 않는 주님 마음을 닮은 신앙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조현우(불리시오) 신부
용성대(공군 제20전투비행단) 성당 주임

제 1 독 시 화답송 제 2 독 시 복음 환호송

예제 33,7-9

◎ 오늘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로마 13,8-10

◎ 알렐루야.

○ 하느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당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을 맡기셨네. ◎

복음 영성제송

마태 18,15-20

사슴이 시냇물을 그리워하듯, 하느님, 제 영혼이 당신을 그리나이다.
제 영혼이 하느님을, 생명의 하느님을 목말라하나이다.

진주교 군중교구시(군 시목 50년사)

육군사관학교의 천주교 활동은 6·25 한국전쟁으로 학교가 진해로 이전해 있을 때인 1951년부터 이미 시작되었다. 육사 제11기 사관생도였던 장인호, 김영곤, 공경만, 조관희 등은 자발적으로 한 자리에 모여 신부를 초빙하여 교리 공부와 미사 봉헌 문제 등을 의논하였다. 이들은 군 사목 외에 삼군 사관학교의 철학강사로 강단에서 생도들을 교육하던 김동한 신부를 육군사관학교로 초빙하여 교리 지도를 받고 주일미사도 봉헌하였다.

육군사관학교 생도 중 최초의 세례자는 조관희(베드로)로 1952년 11월 1일 해군 통제부성당에서 김동한 신부 주례로 세례를 받았다. 육군사관학교 11기생으로 입학한 조관희는 천주교를 전혀 알지 못하였다. 그는 기초군사훈련을 마치고 진해 시가지로 첫 외출을 나갔다가 두 수녀를 길에서 만나 대화를 한 것이 천주교 신자가 된 계기였다. 단지 호기심에서 수녀들에게 대화를 청하였던 조관희는 수녀들을 따라 진해성당을 방문, 천주교를 소개받았다. 그 후 조관희는 주일마다 새벽이면 진해성당을 찾아가 교리교육을 받았고, 동기 장인호와 김영곤이 복사 출신임을 알게 되자 함께 통제부성당의 미사에도 참여하였다. 그러던 중 예비자가 5~6명으로 증가하였고 김동한 신부가 육군사관학교에 철학 강의를 나오게 된 것을 계기로 학교 내 콘서트 건물에서 교리를 공부하고 미사를 봉헌하였다. 콘서트 임시 가건물에서 교리교육을 받은 예비자 생도들은 1953년 4월 4일, 5월 29일, 6월 23일 세 차례에 걸쳐 세례를 받았다. 육군사관학교가 진해에 있는 동안 모두 5차례에 걸쳐 11기생 11명, 12기생 3명 등 14명의 생도가 영세하였다.

진해 시절 사관생도의 신앙 활동은 학교에서의 인적, 물적 지원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생도 스스로의 신앙에 대한 갈망에서 비롯되었다. 교리서나 신앙서적을 구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서 김동한 신부가 순회하며 나누어 주는 교리서나 윤형중 신부의 저서 몇 권이 그들이 볼 수 있는 신앙 서적의 전부였다. 생도들의 신앙 활동에 대한 학교당국의 시간적 배려가 전혀 없었던 당시 생도들은 새벽이나 외출신고 후에 함께 모여 교리교육을 받고 미사를 봉헌하였다. 천주교 신자 및 예비자 생도들의 자발적 활동과 모임은 그 자체로 육군사관학교에서의 천주교 신앙 생활의 시작이라는 데 큰 의의를 지닌다. <다음 주에 계속>

『진주교 군중교구시(군 시목 50년사)』 발췌, 진주교 군중교구

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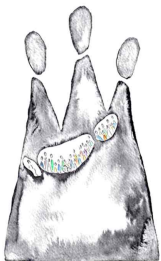
음

목

상

- 배영길(베드로) 신부 / 예수회

하나, 둘, 셋이 모여



하나, 둘, 셋이
모여 이렇게
하늘을 노래합니다.
사람을 품어 봅니다. 함께 사랑을 품어주니
하늘이 보시기
좋은 것입니다.
함께 하늘을 노래하니
흐뭇할 것입니다.

▶배영길 신부님의 다른 목상글도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QR코드를 확인해보세요!



◆ ‘군중의 시간’ 3주차 프로그램 〈군장병의 편지〉 원고 모집

- 분량: A4 빈쪽~한쪽
- 소재: 군 생활 에피소드, 소감, 진역 이후의 계획 등 소재 무관(신창곡 기능)
- 기한: 연중 상시 접수
- 접수: 군중교구 홍보국 (hongbo@gunjong.or.kr)
- 선정 시 소장의 모바일 쿠폰을 드립니다.
- 장병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상화이야기

형제들에게 자신을 밝히는 요셉



인 루이 지로데(Anne-Louis Girodet, 1767-1824), 1789년 제작
캔버스 위 유화, 120×155cm / 에콜 데 보자르, 파리

구약의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은 과거 형들의 질투로 구덩이에 던져진 채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 갔었다. 이후 파란만장한 시련을 거쳐 이집트의 통치자로 높은 자리에 오른 요셉은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 극심한 기근을 피해 곡식을 사러 온 형제들을 다시 마주하게 된다.

본 작품은 요셉이 마침내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긴장감 넘치는 순간(창세기 45장)을 성경의 내용을 바탕으로, 거대하고 대 이집트 석상들이 고요히 서 있는 배경에서 연극 무대처럼 표현하였다.

화면 오른쪽의 요셉은 더 이상 복받치는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모든 신하를 밖으로 물러가게 한 뒤, 권력자로서 앉아 있던 황금빛 옥좌에서 급히 내려오는데, 휘날리는 겹옷은 이를 잘 보여준다. 요셉의 표정은 위엄 있는 권력자의 얼굴이 아니라, 오랜 세월 억눌러 온 그리움과 슬픔, 복받치는 감정이 뒤섞인 인간적인 얼굴을 하고 있다. “요셉이 목 놓아 울지, 그 소리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들리고 피리오의 궁궐에도 들렸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아직 살아 계십니까?’ ” (창세 45.2-3)

요셉의 친동생이자 막내인 벤야민은 순백의 튜닉을 휘날리며 요셉의 품으로 가장 먼저 다가가 요셉과 눈물의 포옹을 하며, 오랜 세월 끊어졌던 형제애를 다시 확인한다. 요셉은 오른손을 내밀어 화면 왼쪽의 다른 형제들에게도 화해의 뜻을 전하지만, 그들은 과거 자신들이 버렸던 동생이 절대 권력자가 되어 서 있는 현실에 압도된 것인지, 아니면 후환이 두려운 것인지, 놀라움과 당혹감, 두려움 등의 복잡한 감정에 사로잡힌 모습이다.

요셉은 자신을 해친 형제들을 용서했지만, 정작 형제들은 과거 자신들이 저질렀던 잔혹함과 다시 마주한 순간, 이렇게 반응한 것처럼 보인다. 어쩌면 이 장면은 타인을 용서하는 것만큼이나, 과거의 잘못을 짊어진 채 살아가는 자신과 화해하고 자신을 용서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은 아닐까?

김은혜(엘리사벳)

교 구 소 식

군중주보회 회원을 위한 미사 - 연중 제23주일: 토성대 오준혁 신부

◆ ‘군중의 시간’ 안내

때: 주일 오후 3시 ~ 4시
평화방송 라디오(105.3Mhz, 서울)
많은 관심과 청취 바랍니다.

◆ 군중교구 ‘잇숨 생기대’ 단원모집

대상: 성가를 통한 군 선교에 관심있는 청·장년
(군 자녀 및 가족 포함)
문의: 010-2992-2649

“ ‘작은 가정교회’ ■ 이루는 온인성사의 해”